

시프트업·케이뱅크 IPO 출격 대기 대어급 진출에 하반기 기대감 ‘쑥’

이달 13개사 공모청약 진행
시프트업, 내달 공모주 일반청약
예상 시가총액 최대 3조4816억
케이뱅크, 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

HD현대마린솔루션, 에이피알 등 대어급의 기업공개(IPO) 흥행 속에 하반기에도 ‘조 단위’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 스펙(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13개사가 일반투자자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지난달 일반 청약을 받은 기업이 두 곳(아이씨티케이·노브랜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

또한 대어급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다. 게임 개발업체 시프트업은 이달 27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예상 시가총액은 2조7272억~3조4815억원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4만7000~6만원이며,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 발행한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시프트업은 2022년 게임 ‘승리의 여신:니케’를 출

시하며 지난해 전 세계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사 5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686억원에 영업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74억원, 영업이익 259억원으로 약 7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시프트업의 수요예측에서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희망 가격 범위 이상의 공모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 상단으로 상장될 경우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상위 4개 임사로 자리 잡게 된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주요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의 현재까지 누적 총매출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LIVE 2D 등 그래픽 기술도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모가 역시 국내 및 글로벌 게임주 대비 저렴하며, 상장 직후 유통 물량도 18%로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IPO 최대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뱅크는 이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1월 IPO 추진을 발표하고 그해 9월 상장예비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증시 부진으

로 IPO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2월 상장을 포기한 바 있다.

연초 IPO 재추진 의사를 밝힌 케이뱅크는 최근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했다.

케이뱅크가 지난 1분기 순이익 507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IPO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는 자기자본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줄줄이 IPO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제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공모가 상단 아니면 상단 초과를 기록한 데다 HD현대마린솔루션, 에이피알 등 공모 규모가 큰 회사들이 IPO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IPO 시장이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김원규 LS증권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이 5일 신규 사명 및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S증권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 만드는 LS증권”

신규 사명·비전 선포식 행사

LS증권은 지난 5일 신규 사명 및 비전 선포식 ‘렛츠 스타트, 메이크 투모로우’ (Let's Start, Make Tomorrow)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LS증권 전 임직원 5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구자용 E1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원규 LS증권 사장과 지난해 우수사원들이 함께 LS증권의 CI(Corporation Identity) 로고를 선포하고, 신입사원들에게 LS증권 신규 배지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김원규 사장의 프리젠테이션으로 LS증권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등이 소개됐다. 신규 거래시스템 브랜드 투혼(TUHON)에 대한 소개 영상도 공개됐다.

새 비전은 LS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임직원의 마인드셋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고자 수립됐다. 비전은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LS증권(Let's Start, Make Tomorrow)’, 미션은 ‘우리는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고의 금융투자 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이다. 핵심 가치는 Professional(탁월한 전문성), Leading(변화 선도), Understanding(존중과 시너지), Shared growth(동반 성장) 4가지, 약칭 ‘PLUS’로 설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비전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LS그룹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1999년 이 트레이드증권으로 시작하여 2015년 이 베스트투자증권으로 진화한 25년간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금감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이달 중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포함해 공매도 전반의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계획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장 등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질의에 답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SDS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다가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개발기간을 단축해 2025년 3월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NSDS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산시스템 베타 운영 검토, 공매도 관련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널 ‘박동희TV’를 운영 중인 박동희 금융 크리에이터는 “금융사들의 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제도가 시행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을 흐르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상위 10개 종목 등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을 더 파악하고, 시스템을 베타 버전 기간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보면 향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복현 원장은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현안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세상 변화 이끄는 테크기업 투자 추천”

한투운용 ‘ACE 빅테크 간담회’

“기술주가 지배하는 시대로 변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집중 ETF
해당 시리즈 총 4종… 오늘 신규 상장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존재감이 확대되면서 투자 흐름도 빅테크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이를 주목해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를 내놓고,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열린 ‘ACE 빅테크 간담회’에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은 기술주가 지배하는 시대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됐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테크 기업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기업 중에서도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해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선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의 저자이자 그래비티자산운용 대표인 아담 시셀이 맡았다.

아담 시셀 대표는 “기술주에 돈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열린 ‘ACE 빅테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복리효과를 믿고 투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1990년대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테크 기업은 BM과 일본전기주식회사(NEC) 2곳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 등 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는 부연이다.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3위 역시 테크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빅테크 기업들의 승자독식 구조와 브랜드 가치, 플랫폼 등에 기반해 경제적 해자를 누린다”며 “모든

기술주가 아닌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김택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택진 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며 테크 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AI 산업은 상상을 뛰어넘는 자본력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이사서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에 대해 소개했다.

김 담당은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7으로 통칭되는 빅테크 상위 7개 기업의 영향력은 기술혁신을 거치며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산업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과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4종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ETF 시리즈는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 등 총 4종으로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